

갈치, 20년 만의 '풍어' '국민생선'으로 돌아온다

6월 어획량 5배 증가...내달 냉동 물량 풀리면 가격 더욱 하락



갈치가 국민생선으로 다시 돌아왔다. 뱃사람들 사이에서는 10년 만의 풍어, 20년 만의 풍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때 갈치가 '급갈치'로 통하며 가장 비쌀 때 1마리에 1만2000원선까지 올랐었지만 올해 모처럼의 풍어를 맞아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아직 조업 초기지만 벌써 위판가가 전년 동기 대비 25~30% 수준이나 떨어졌다. 열린 선동갈치 유통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8월에 가서는 지난해 대비 40%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는 예

측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4개 수협(한림/서귀포/성산포/제주시)의 6월 한 달 기준 어획량이 전년 동기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6월 갈치 어획량은 621톤에 위판액이 95억 원에 그쳤지만 올 6월엔 벌써 2951톤에 439억 원을 기록했다.

1~6월 누계로는 어획량 5906톤(위판액 990억 원)으로 지난해 3288톤(위판액 720억 원) 대비 80% 가량 증가했다. 서귀포 수협 10kg(32~33미) 선동(냉동) 갈치 기준 위판가 역시 지난해 7월초 18만원 선에서 올 7월초 13~14만원 선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 같은 갈치 대풍 현상은 제주 연근해 어장의 수온이 예년보다 높고 갈치 먹이자리가 풍부해지면서 갈치 어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갈치의 주 조업 시기는 7~9월로, 제주도에서 4~5시간 떨어진 연근해로 나가 조업을 한다.

특히 7월 한달 동안에는 대량 조업 형태인 '연승' 조업이 금지되어 있어 아직까지 위판가 13~14만원 선(선동 기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8월 들어서면서부터 선동 물량이 시중에 풀리기 시작하면 갈치 가격은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한편 이 같은 갈치 대풍 현상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정부에 갈치수매자금 390억 원을 긴급 지원 요청하기도 했다.

소비자들도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이마트 7월 둘째주 기준 생갈치 1마리 1마리 판매가는 2014년 8,800원, 2015년 9,380원, 2016년 10,800원에서 2017년 6,200원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마트 김상민 수산 바이어는 "최근 어족자원 고갈로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갈치가 드물게 대풍을 맞으면서 오랜만에 저렴한 가격에 제철 생선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갤노트FE' 40만대 동날 듯...이통시장 '활기'

출시 이틀만에 품절현상...흥행에도 추가물량 공급 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FE'가 출시 후 이틀만에 품절현상을 보이며 이통통신시장의 호재가 되고 있다.

10일 이통통신업계 따르면, 갤럭시노트FE가 출시된 7일부터 8일까지 이통통신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4만4162건을 기록했다. 7일 2만190건, 8일 2만1992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에 근접했다.

9일은 일요일이라 이동 3사가 번호이동 및 개통관련 전산 업무를 하지 않았다. 다만, 대리점·판매점의 일요일 영업은 자율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이날 단발기를 구입한 고객들의 개통처리는 월요일에 이뤄지

게 된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10일 번호이동 건수는 평소 평일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갤노트7 단종 이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찾지 못한 소비자들이 갤럭시FE 수요를 높이고 있는 것 같다"며 "갤노트8을 구매할 계획이 아닌 이상 갤럭시FE에 눈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갤럭시FE의 흥행에도 추가 물량 공급은 없을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오는 8월말 갤럭시8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갤럭시FE의 물량을 추가할 경우 필연적으로 갤럭시8의



잡재 수요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초에 갤럭시FE는 40만대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이라며 "물량이 모자랄 정도로 인기를 끈다고 하더라도 추가 출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갤FE는 갤럭시7의 미개봉 제품과 미사용 부품을 활용해 만들었다. 전작인 갤럭시7과 주요 스펙은 동일하고, 가격은 69만9600원으로 29만원 가량 저렴하다.

뉴시스

중 판매 비상 현대·기아차, 세계 5위 자리 내주나

사드 배치 여파로 4개월 연속 판매 50~60% 감소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5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며 6위인 포드와의 판매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10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 시장분석업체 '자토 다이내믹스' 등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지난 5월 판매 순위는 폭스바겐, 토요타, 르노닛산, 제너럴모터스, 포드, 현대·기아차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52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했으며 대형 상용차 판매는 제외했다.

현대·기아차가 지난 5월 전년 대비 17% 감소한 52만5790대를 팔아 포드에 5위 자리를 내줬다. 포

드는 같은 기간 54만9012대를 판매해 8% 증가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3월에도 포드에 밀려 6위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5월 누적 판매 실적에서는 현대기아차가 258만4812대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전년 대비 판매량이 10% 감소해 상위 10개 제조사 가운데 나뭇잎이 가장 컸다.

6위인 포드도 판매량(254만3423대)이 전년 대비 1% 줄었으나 현대·기아차의 하락률이 더 큰 탓에 판매 격차가 3만9000여대에 불과했다. 4위인 제너럴모터스(371만1517대)와는 판매 격차가 112만여 대로 나타났다.

자토 다이내믹스는 현대기아차

가 지난 5월 미국과 중국에서 판매량이 두자릿수 감소하며 포드보다 판매량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현대기아차는 사드 배치 여파로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중국 판매가 50~60% 감소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의 SUV 부분도 약점으로 지적됐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0년 연간 글로벌 판매량 5위에 오른 뒤 지난해까지 5위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판매량이 3년 만에 800만대 아래로 떨어지고, 올해는 미국과 중국에서 고전하며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한편 올해 1~5월 누적 기준 상위 1~3위 자동차 제조사는 폭스바겐(419만1487대), 르노닛산(379만7449대), 토요타(383만5626대) 순으로 집계됐다.



공공신발 신고뛰어보자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 8층에서 유·아동 트렌드 슈즈 전문 멀티샵 '스텝케어(STEP CARE)'가 7월30일까지 팝업 진행중이다. 스텝케어는 미국 공공운동화의 대명사로써, 디테일이 살아있는 공용 캐릭터 브랜드이며, 공용 발바닥과 밀림을 연상시키는 아웃솔을 적용한 디자인이다.

중소 CEO 10명 중 3명 "여름휴가 계획없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중소기업 CEO 10명 중 3명은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2017 중소기업 CEO 여름휴가 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3명꼴인 33.3%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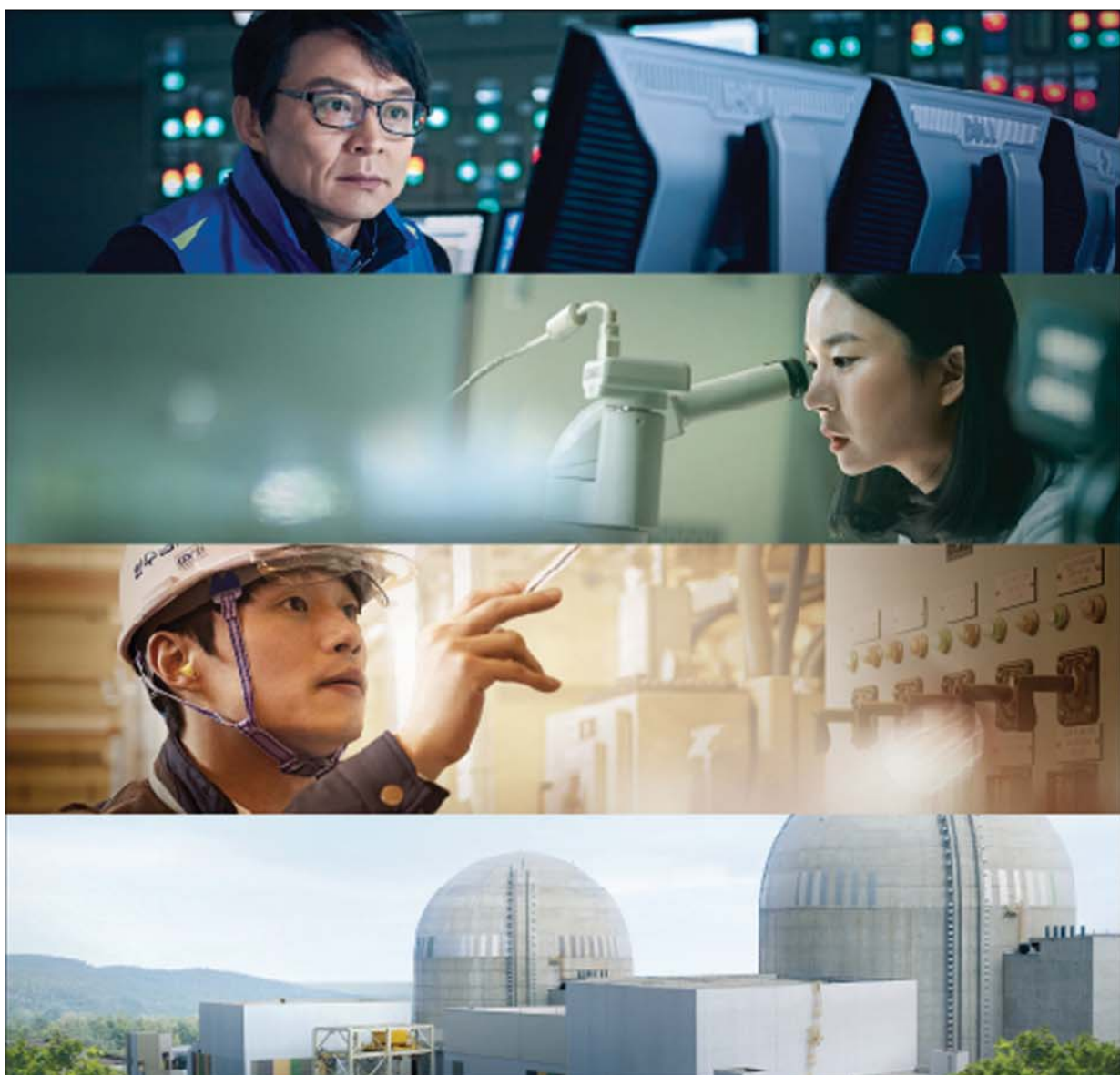
휴가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경영 상황 악화와 납품일정 등 회사업무 때문이 각각 37%, 38%로 가장 많았다. 휴가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대답도 24%나 됐다.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CEO들은 평균 3.8일을 쉴 계획이다. 특히 91%가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활성화를 고려했다.

여름 휴가계획이 있는 CEO들이

계획 중인 휴가 형태는 '명소·휴양지 방문'이 57%로 가장 높았고 '독서·사색 등 집에서 휴식(16.0%)', '고향·친지 방문(12.5%)', '골프 등 레저·스포츠 활동(10.5%)'이 뒤를 이었다. 또 92.7%의 응답자들은 여름휴가를 통한 정기적인 휴식(재충전)이 CEO의 기업경영 또는 임직원의 업무 집중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75%는 여름휴가와 관련해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우리 땅, 우리 가족, 우리 국민이기에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안전입니다

기준 초과 지진 발생 시 원자로 자동정지시스템 구축
100여개 항목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안전점검 준수
경주지진의 63배 에너지에도 끄떡없는 내진설계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